

간심위폐신 오장 학설에 관한 고찰

¹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재민¹ · 김기왕¹ *

A study on the ancient Five Viscera theory consisted of Liver, Heart, Stomach, Lung, Kidney

Park Jaemin¹ · Kim Kiwang¹ *

¹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Korean Medicine

Objectives : Before Liver, Heart, Spleen, Lung, Kidney was widely accepted as Five Viscera, there had been several former types of Viscera system in pre-Western Han era. Above them, the Five Viscera system consisted of Liver, Heart, Stomach, Lung, Kidney was not yet hardly studied. So we tried to prove it's existence and tried to find it's historical context.

Material and Methods : Via preceding research analysis, 6 books were selected as research material, and some other pre-Eastern Han dynasty classics were also analyzed.

Results : We found direct evidence of above Five Viscera system in *Zhuixingxun* (鑿形訓) in *Huainanzi* (淮南子), *Wusemaizhen* (五色脈診), and Western Han dynasty lacquer figure with meridian-points (excavated in Laoguanshan, Chengdu, China). Other clues showing existence of above Five Viscera system was also found in *Yinyangshiyimaijiujing* (陰陽十一脈灸經), *Pianquecangongliechuan* (扁鵲倉公列傳). The rising of above Five Viscera system was related to physiological viewpoint transition of viscera in Western Han dynasty.

Conclusions : In Western Han dynasty there was another Viscera System consisted of Liver, Heart, Stomach, Lung, Kidney.

Key Words : Five Viscera, Stomach, Gallbladder, Ancient physiological idea, Han dynasty.

I. 서 론

오늘날 동아시아 전통의학은 간(肝), 심(心), 비

* Corresponding Author : Kim Kiwang,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Korean Medicine, 49 Busandaehak-ro, Mulgeumeup, Yangsan city, Kyungsangnamdo, Korea
Tel: +82-51-510-8466, E-mail: kimkiwang@hanmail.net
김기왕(金基旺).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로 49.

Received(30 January 2015), Revised(15 February 2015), Accepted(15 February 2015).

(脾), 폐(肺), 신(腎)의 다섯 장기를 차례로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의 오행 각각에 대응시키는 오장 학설을 근간으로 하는 기초이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오장 학설은 『황제내경(黃帝內經)』, 『난경(難經)』의 여러 편·장에 일관되게 등장하며 이후의 의서에 그대로 계승되었으므로 적어도 후한(後漢) 시기에는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정설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한 이전의 문헌에는 장(臟)의 지칭 대상이 반드시 지금의 오장인 것은 아니었으며 장기 각각의 오행 속성 역시 지금의 대응과 다른 형태가 존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전국시대의 문헌인 『장자(莊子)』에는 ‘오장(五藏)¹⁾²⁾³⁾이란 표현 이외에 ‘육장(六藏)⁴⁾이란 표현이 나타나며, 『주례(周禮)』에는 ‘구장(九藏)⁵⁾이란 표현이 나타난다. 후대의 문헌인 『황제내경』에도 오장 이외에 ‘구장(九藏)⁶⁾⁷⁾, ‘십이장(十二藏)⁸⁾ 등의 표현이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장(臟)의 수효와 지칭 대상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장 각각이 오행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비, 폐, 심, 간, 신을 각각 오행의 목, 화, 토, 금, 수에 연결한 소위 고문설(古文說)과 간, 심, 비, 폐, 신을 각각 목, 화, 토, 금, 수에 연결한 소위 금문설(今文說)이다⁹⁾.

『황제내경』 이전의 장부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현행의 오장 학설과 유사하지만 비장이 위(胃)로 대체된 오장 학설, 즉 간, 심, 위, 폐, 신을 각각 목, 화, 토, 금, 수에 연결하는 오장 학설(이하에서 이를 ‘간심위폐신 오장 학설’로 줄여 지칭함)이 보인다. 대표적인 예가 『회남자·추형훈』에 보이는 기록¹⁰⁾이다. 이러한 배속 형태는 기존 오장 학설과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종래의 연구에서 흔히 현행 오장 학설(소위 ‘금문설’)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¹¹⁾되었고 별도의 오장 학설로서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 사천성 성도시(成都市) 노관산(老官山)에서 출토된 전한시대의 문헌과 경맥 인형에는 간심위폐신 오장 학설의 존재를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가 등장하였다. 따라서 이제 간심위폐신 오장 학설을 현행 오장 학설과 뭉뚱그려 한 데 취급하는 것보다는 이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동기에서 우리는 간심위폐신 오장 학설의 존재를 입증하고 그러한 오장 학설이 도입된 배경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현행 오장 학설 정립 이전의 오장 체계가 의학외적인 영역의 문헌에서 나타나¹²⁾ 반면 간심위폐신 오장 학설은 전문적인 의학적 주제를 다룬 사료에 보이므로 간심위폐신 오장 학설에 대한 검토는 중국 고대의학의 성립 과정을 밝히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1) 多方乎仁義而用之者，列於五藏哉，而非道德之正也。……駢枝於五藏之情者，淫僻於仁義之行，而多方於聰明之用也。(莊子·外篇·駢拇第八)

2) 故君子苟能無解其五藏，無擢其聰明，尸居而龍見，淵默而雷聲，神動而天隨，從容無爲而萬物炊累焉。(莊子·外篇·在宥第十一)

3) 愁其五藏以爲仁義，矜其血氣以規法度。(莊子·外篇·在宥第十一)

4) 面骸、九竅、六藏，賅而存焉，吾誰與爲親？(莊子·內篇·齊物論第二)

5) 以五氣、五聲、五色視其死生，兩之以九竅之變，參之以九藏之動。(周禮·天官·塚宰)

6) 故形藏四，神藏五，合爲九藏以應之也。(黃帝內經·素問·六節藏象論)

7) 神藏五，形藏四，合爲九藏。(黃帝內經·素問·三部九候論)

8) 願問十二藏之相使貴賤何如？(黃帝內經·素問·靈蘭秘典論)

9) 今文《尚書》歐陽說：肝，木也；心，火也；脾，土也；肺，金也；腎，水也。古《尚書》說：脾，木也；肺，火也；心，土也；肝，金也；腎，水也。(唐·孔穎達《禮記正義》의 『五經異義』 인용문)

10) 東方川谷之所注，……筋氣屬焉，蒼色，主肝，……。南方陽氣之所積，……血脈屬焉，赤色，主心，……。西方高土，川谷出焉，……皮革屬焉，白色，主肺，……。北方幽晦不明，……骨幹屬焉，黑色，主腎，……。中央四達，……膚肉屬焉，黃色，主胃，……。

11) Written by Kano Yoshimitsu. Translated by Kyobin Kim, Hyungu Lee, Seokjun Park, Heuikyung Whang, Namho Cho. Chinese Medicine and philosophy (중국 의학과 철학). Seoul. Yeogang publishing company. 1991. p.194.

12) Jang Mi-jung, Kim Kiwang. Did the current correspondence scheme between Five Viscera and Five Phases arise from social and humane hegemony conflict? - some clues from "Changgongyeoljeon(倉公列傳)" in "Sagi(史記)".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0. 23(3). pp.127-138. * 이 논문의 '제 1계열', '제 2계열' 문헌이 이에 해당한다(p.137 그림 3).

II. 재료와 방법

본 논고의 연구 주제는 『황제내경』 오장 학설 성립 이전의 오장 체계를 밝히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전한 이전의 문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중국지망(中國知網, www.cnki.net)에서 ‘오장(五臟)’을 관건사(關鍵詞)로 포함하고 있는 논문을 검색하였고 이 방법으로 검색된 430건의 논문 가운데 전한 이전의 오장 학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은 모두 9종이었다¹³⁾. 국내 한의학 논문 가운데 전한 이전의 오장 학설을 언급한 논문은 전통의학정보포털(oasis.kiom.re.kr), 한국전통저식포털(koreantk.com),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kr)의 3중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오장’, ‘오행’, ‘장부’의 검색어를 키워드나 논문 제목으로 입력하여 검색하였다. 검색된 논문 가운데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논문은 모두 4종이었다¹⁴⁾. 이렇게 선정된 한국과 중국의 13종 논문을 종합해 본 결과 전한 이전에 저작된 고문헌 가운데 오장 체계를 전면적으로 언급한 문헌은 『관자(管子)』, 『예기(禮記)』, 『여씨춘추(呂氏春秋)』, 『회남자(淮南子)』, 『태현(太玄)』, 『춘추위원명포(春秋緯元命苞)』였다 (Table 1).

Table 1. Pre-Eastern Han era books that referred Five Viscera system based on Wuxing framework.

문헌	오장 계통을 언급한 부분	저작 시기
『관자(管子)』	『수지(水地)』	기원전 376~355*
『예기(禮記)』	『월령(月令)』	미상
『여씨춘추(呂氏春秋)』	십이기(十二紀)	기원전 293
『회남자(淮南子)』	『천문훈(天文訓)』, 『추형훈(墜形訓)』, 『시칙훈(時則訓)』	기원전 139 (중앙정부에 제출한 시기)
『태현(太玄)』	『현수(玄數)』	기원전 2

13) 참고 문헌의 <논문> 5~13에 명시함.

14) 참고 문헌의 <논문> 4와 14~16에 명시함.

『춘추위원명포(春秋緯元命苞)』 권상(卷上) 기원후 5~9**

* 黃釗. 淺論《管子·水地》篇成文的時限. 管子研究. 濟南. 山東人民出版社. 1987. pp.42-51.

** 徐棟梁, 曹勝高. 《春秋緯》成書考. 濟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9. 19(4). p.53.

이들 6종의 서적 외에 현대에 출토된 전한 이전의 의학 문물과 부분적으로 장부 학설을 언급한 전한 이전의 문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현대에 출토된 문물로는 1973년 중국 호남성 장사(長沙)시의 마왕퇴(馬王堆) 한대 분묘에서 출토된 의학 문헌과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중국 사천성 성도시(成都市)의 노관산(老官山) 한대 분묘에서 출토된 의학 문헌 및 혈위·경락 인형이 주요한 고찰 대상이었으며 부분적으로 장부 학설을 언급한 문헌으로는 『사기(史記)』의 『편작장공열전(扁鵲倉公列傳)』이 주요한 고찰 대상이었다.

III. 결 과

1. 오장과 오행의 대응 유형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전한 이전의 문헌에서는 모두 4종의 오장-오행 대응 유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자·수지』에서는 오행의 목, 화, 토, 금, 수가 각각 비, 간, 심, 신, 폐에 대응하는 형태의 오장 계통이 기술되어 있으며 『예기·월령』, 『여씨춘추』의 십이기(十二紀), 『회남자·시칙훈』, 『태현』에는 오행의 목, 화, 토, 금, 수가 차례로 비, 폐, 심, 간, 신에 대응하는 형태의 오장 계통이 등장하고 『춘추위원명포』에는 현행의 오장 계통, 즉 목, 화, 토, 금, 수 각각이 간, 심, 비, 폐, 신에 대응하는 형태가 등장한다. 『회남자·추형훈』에는 현행의 오행-오장 대응과 동일하지만 비장 대신 위가 등장하는 대응 형태, 즉 목, 화, 토, 금, 수 각각에 간, 심, 위, 폐, 신이 대응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표 1에 표시한 6종의 문헌에서 확인된 오장 계통을 오행과의 대응에 따라 정리하면 표 2(Table 2)와 같다.

Table 2. Wuxing elements correspondent with Five Viscera in Pre-Eastern Han era books

출전	오행의 각 행에 대응하는 장부				
	목	화	토	금	수
관자	비	간	심	신	폐
예기, 여씨춘추, 회남자·시척훈, 태현	비	폐	심	간	신
회남자·추형훈	간	심	위	폐	신
춘추위원명포	간	심	비	폐	신

2. 간심위폐신 오장 학설을 언급한 자료

『회남자·추형훈』에 간심위폐신 오장 학설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반면 전한시대의 몇 가지 문헌에는 간심위폐신 오장 학설의 단서가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자료로는 『사기·편작창공열전(史記·扁鵲倉公列傳)』(창공열전 부분)과 1973년 발굴된 장사 마왕퇴(馬王堆) 출토 의서 가운데 『음양십일맥구경(陰陽十一脈灸經)』 그리고 2012~2013년 발굴된 성도 노관산(老官山) 출토 의서 중 『오색맥진(五色脈診)』¹⁵⁾ 및 같은 곳에서 발굴된 경혈·경맥 인형이 이에 해당한다.

간심위폐신 오장 학설을 직, 간접적으로 언급한 각종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간심위폐신 오장 학설의 출현 배경에 대해서는 아래의 「고찰」 단락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IV. 고찰

『황제내경·소문·오장별론(黃帝內經·素問·五藏別論)』에는 황제내경 저작기에 오장의 범주가 여전히 혼란스런 상태였음을 엿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보인다.

황제께서 물어 말씀하시기를, “제가 듣기로 방사(方士)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뇌와 척수를 장(臟)이라 하고, 어떤 자들은 창자와 위를 장이라 하며 또 어떤 자들은 창자와 위를 부(腑)라 말한다고 합니다. 감히 여쭙노니, 이렇듯 거듭 상반되게 모두 자신이 옳다 하므로 답을 찾을 길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라 하였다.¹⁶⁾

이것을 보면 지금과 달리 이 시기에는 위(胃)를 부가 아닌 장으로 여기는 무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남자·추형훈(淮南子·隳形訓)』은 간, 심, 비, 폐, 신의 오장이 아닌 간, 심, 위, 폐, 신의 다섯 장기로 구성된 오장 계통을 제시하였다.

동쪽은 개천과 골짜기가 흘러드는 곳이며 …… 구멍에 있어서는 눈과 연결되며 힘줄의 기가 거기에 속한다. 푸른색이며 간을 관장하고 …… 서쪽은 높은 지역으로서 개천과 골짜기가 거기서 발원하고 …… 구멍에 있어서는 코와 연결되며 가죽이 거기에 속한다. 흰색이며 폐를 관장하고 …… 북쪽은 깊숙하고 어두우며 하늘이 닫히는 곳이자 차가운 물이 쌓이는 곳이며 …… 구멍에 있어서는 생식기와 연결되며 뼈대가 거기에 속한다. 흑색이며 신장을 관장하고 …… 중앙은 사망으로 통하며 바람이 드나드는 곳이자 비와 이슬이 모이는 곳이고 …… 구멍에 있어서는 입에 연결되며 살갗이 거기에 속한다. 황색이며 위를 관장하고 ……¹⁷⁾

15) 출토시 서명(書名)이 표기되어 있었음.

16) 黃帝問曰：“余聞方士，或以腦髓爲藏，或以腸胃爲藏，或以爲府。敢問更相反，皆自謂是，不知其道，願聞其說。”

17) 東方，川谷之所注，……竅通於目，筋氣屬焉，蒼色，主肝，……南方，陽氣之所積，……竅通於耳，血脈屬焉，赤色，主心，……西方，高土，川谷出焉，……竅通於鼻，皮革屬焉，白色，主肺，……北方，幽晦不明，天之所閉也，寒水

1973년 중국 장사의 마왕퇴(馬王堆)의 전한시대 분묘 발굴된 의서들 역시 당시의 오장 학설이 아직 『황제내경』과 같은 형태로 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음양맥사후(陰陽脈死候)』는 인체의 다섯 조직(筋, 血, 肉, 氣, 骨)을 지체, 관규에 대응시켰는데 이는 지금의 오장 학설과 어느 정도 일치하지만 『태산서(胎產書)』는 『관자』의 오장 학설에 부합되는 장부 발생을 설명하고 있다¹⁸⁾. 마왕퇴 출토 의서 가운데 간심위폐신 오장 학설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음양십일맥구경(陰陽十一脈灸經)』으로서

래음맥, 이것은 위의 맥이며, 위를 덮고 있다.¹⁹⁾

라 하여 족태음맥을 비장이 아닌 위에 연결된 맥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이다.

『사기(史記)』의 「편작창공열전(扁鵲倉公列傳)」에 수록된 창공의 진료기록 가운데에도 비장 대신 위를 토(土)의 대표 장기로 간주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나타난다.

봄이 되어 죽을 병임을 알았던 것은 (얼굴에) 위(胃)의 기가 노랗게 나타났기 때문인데, 노란 것은 토(土)의 기로서, 토가 목(木)을 이기지 못하므로 봄이 되자 죽었던 것입니다.²⁰⁾

『음양십일맥구경』과 「편작창공열전」의 기록이 간심위폐신 오장 학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인 반면 최근 중국 성도시의 노관산(老官山) 한대 분묘에서 출토된 『오색맥진(五色脈診)』이라는 진단 분야의 저작물은 간심위폐신 오장 계통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심장의 기는 붉고 폐의 기는 희며 간의 기는 푸르고 위의 기는 누르며 신의 기는 검다. 그러므로 오장의 기를 이용(하여 맥을 구분)한다.²¹⁾

이 문장을 보면 간, 심, 위, 폐, 신의 다섯 장기를 문헌의 저자들이 ‘오장’으로 지칭하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오장 체계는 같은 곳에서 출토된 경혈·경맥 인형에서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Figure 1)은 이 인형의 등 부위를 확대하여 나타낸 것이다.²²⁾ 대체로 지금의 오장 배수혈이 존재하는 위치에 소전(小篆)으로 표기된 심(心), 폐(肺), 간(肝), 위(胃), 신(腎)이라는 다섯 글자가 뚜렷하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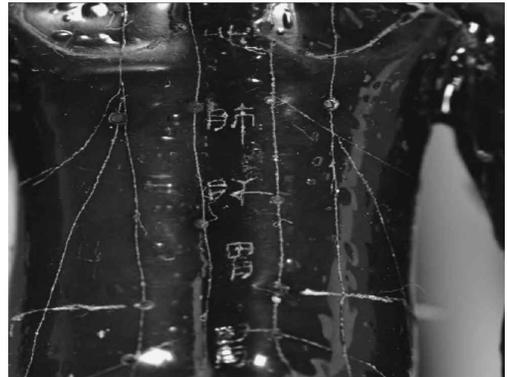


Figure 1. Back side of the Western Han dynasty lacquer figure with meridian-points, excavated in Laoguanshan, Chengdu, China. (Cited from Liang et al. 2015)

之所積也, …… 竅通於陰, 骨幹屬焉, 黑色, 主腎, ……。中央, 四達, 風氣之所通, 雨露之所會也, …… 竅通於口, 膚肉屬焉, 黃色, 主胃, ……。

18) Chen Jiquan, Li Jingbo. A further study of Five Elements and Five Organs correspondence (五行與五臟配屬史的再研究). Guangming Journal of Chinese Medicine. 2010. 25(11). p.1986.

19) 大陰脈, 是胃脈也, 被胃。

20) 所以至春死病者, 胃氣黃, 黃者土氣也, 土不勝木, 故至春死。

21) 心氣者赤, 肺氣者白, 肝氣者青, 胃氣者黃, 腎氣者黑, 故以五藏之氣。

22) Liang Fanrong, Zeng Fang, Zhou Xinglan, Xie Tao, Lu Yinke, Wang Yi, Jiang Zhanghua. Preliminary study on lacquer figure with meridian-points marked of the western Han dynasty unearthed in Laoguanshan, Chengdu. Chines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2015. 35(1). p. 92.

이상에서 살펴본 『회남자·추형훈』, 『사기·편작창공열전』, 『음양십일맥구경』, 『오색맥진』 및 노관산출토 경맥 인형을 토대로 판단할 때 황제내경 성립 이전, 전한시대에 현행 오장 학설과 다른 간심위폐신 오장 학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전한시대 문헌에 위를 오장의 하나로 여기는 오장 학설이 등장한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형태 위주의 장기관(臟器觀)이 기능 위주의 장기관으로 이행된 당시의 상황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아래에 그러한 흐름에 대해 잠시 설명하기로 한다.

내장 기관을 지칭하는 장부(臟腑)라는 말이 언제 최초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는 곤란하나 적어도 전국시대에는 장(藏)과 부(府)라는 말이 내장 기관을 지칭하는 말로서 사용되었다²³. 단어의 어의가 대개 구체적 의미에서 추상적 의미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확인 가능한 속성과 관련된 의미로부터 새롭게 확인된 내용 또는 유추된 의미로 발전해 나가는 언어 발전의 일반적 경향을 생각할 때 장과 부라는 말 역시 최초에는 내장 기관의 외형적 특징을 기초로 만들어

졌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장과 부를 나누는 외형적 특징은 무엇일까? 가장 간단한 특징을 들자면, 장은 실질 조직으로 채워진 장기이고 부는 속이 빈 장기라고 할 수 있다. 심장과 신장은 내부에 빈 공간, 즉 심장의 경우에는 심방과 심실이, 신장의 경우에는 신우(腎盂)라는 공간이 있지만 심근과 신장 실질이 차지하는 공간이 적지 않다²⁴. 그림 2(Figure 2)에 표시하였듯이 사체의 장기를 절단해보면 간, 심장, 비장, 폐, 신장의 다섯 장기는 담낭, 위 등의 여타 장기와 달리 풍부한 실질 조직으로 채워져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부(腑) 가운데는 이처럼 속이 빈 장기, 즉 관강성 장기(管腔性臟器, hollow organs)라 쉽게 말할 수 없는 장기가 하나 있다. 바로 삼초(三焦)다. 삼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설을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겠으나, 쉽사리 이를 관강성 장기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부(腑)란 말은 애초에 관강성 장기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닌, 또 다른 의미를 가진 말이었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한 가지 증거는 전국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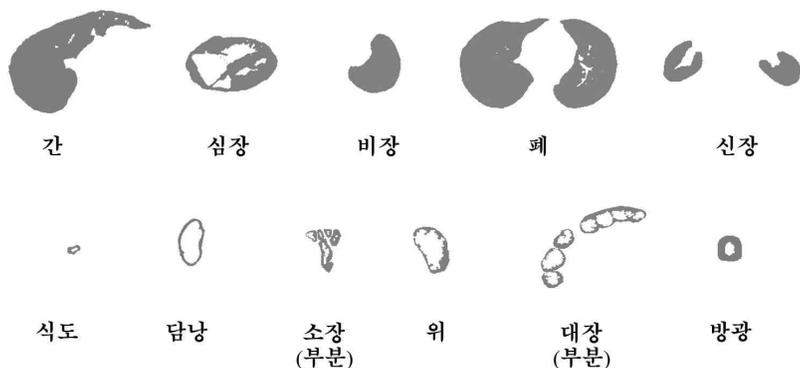


Figure 2. Transverse section of organs in human body trunk. Illustrated from original segmentation drawings of “Visible Korean” (<http://vkh3.kisti.re.kr/>). Gall bladder, small intestine, and large intestine was painted by the authors because there were no segmented cavity area in original drawings.

23) 예를 들어 『장자(莊子)』에는 오장(五藏), 육부(六府), 육장(六藏)이란 말이 등장한다.

24) 고대 중국인들이 심장을 빈 주머니라기보다 실질 조직이 채운 장기로 인식한 데에는 과거 그들이 심장을 혈액 순환을 담당하는 ‘펌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문헌 『한시의전』으로부터 인용된 다음과 같은 서술이다.

무엇을 일러 육부라 하는가? 인후는 헤아려 받아들이는 부이고, 위는 오곡의 부이며, 대장은 이동시키는 부이고, 소장은 받아서 담는 부이며, 담은 정을 쌓아두는 부이고, 방광은 액(液)의 부이다.²⁵⁾

여기서는 삼초 대신 인후(식도)가 육부의 하나로 등장한다. 그림 2에 표시한 바와 같이 담낭, 소장, 위, 대장, 방광과 함께 식도를 묶어보면 이들이 체간부 내장 가운데 대표적인 관강성 장기에 해당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처럼 장과 부라는 말의 존재는 고인들의 내장에 대한 형태적 인식, 소박한 해부학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고대 의학이 이론적 체계, 즉 현상에 대한 설명의 체계를 구축해 가면서 이러한 소박한 해부학적 인식에 근거한 장기관은 한 가지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바로, 음식물의 이동 과정에 대한 설명의 불완전성이다. 그림 3(Figure 3)에 표시한 바와 같이 음식물, 소위 수곡(水穀)의 통로 가운데 고행분[穀]의 통로는 앞서 설명한 전국시대의 육부, 즉 식도, 위, 소장, 대장 등 오늘날 ‘위장관(胃腸管, gastro-intestinal tract)’에 해당하는 장기를 동원하여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들은 연속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통로를 구성하므로 해부학적 지식이 현상의 배후를 설명하는 기초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그림 3의 a). 그러나 음식물 가운데 액체 성분[水]이 어떤 경로를 거쳐 소변이나 땀으로 나오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당시의 해부학적 지식으로는 궁색해 질 수밖에 없다(그림 3의 b). 즉 방광에 모이는 소변이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된 것인지 말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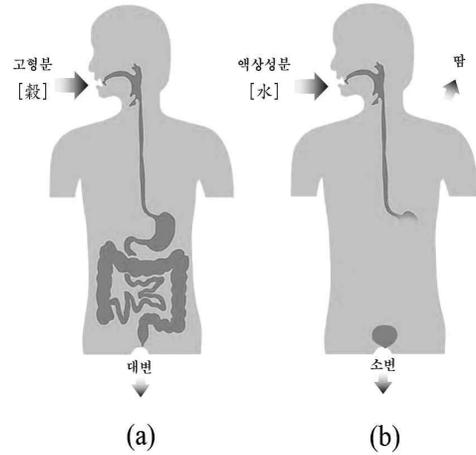


Figure 3. Tract of solid substance of foods (a) and fluid substance of foods (b) based on the ancient Zangfu system in *Hanshiwaichuan* (韓詩外傳).

필자는, 이러한 배경에서 전한시대에 삼초(三焦)²⁶⁾라는 장기가 육부의 하나로 도입되었다고 본다. 이것은 또 다른 상세한 논증이 필요한 별도의 논제이므로 본 논고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나, 고인들은 해부를 통해 방광으로 주입되는 수분의 통로를 확인할 수 없었을지라도 그러한 통로가 인체의 어딘가에는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인체의 현상에 대한 고인들의 설명 체계, 즉 고대 생리학이 형성되며 장부의 의미와 지칭 대상은 변동하게 된다. 애초에 형태적 기준에 근거하여 속이 채워진 장기와 속이 빈 장기를 지칭하던 장과 부라는 말이 『황제내경』에서는 각각 체내 유동 성분(정·신·기·혈·진·액)을 함장(含藏)하는 기관과 음식물의 전화, 이동을 담당하는 기관이란 의미로 바뀌게 된다²⁷⁾.

표 3(Table 3)에 고대 생리학 형성기에 나타난 육부의 지칭 대상과 의미의 변동을 요약한다. 표에

25) 何謂六腑? 咽喉, 量入之府; 胃者, 五穀之府; 大腸, 轉輸之府; 小腸, 受盛之府; 膽, 積精之府; 膀胱, 液之府也。(太平御覽·卷361의 韓詩外傳 인용문)

26) 『사기(史記)』의 「편작창공열전(扁鵲倉公列傳)」에 처음 나타난다.

27) 所謂五藏者, 藏精氣而不瀉也, …… 六府者, 傳化物而不藏 ……。(黃帝內經·素問·五藏別論)

서 지적되었듯이, 이 과정에서 원래 육부의 하나로 서 전혀 이질감이 없었던 담낭은 새로이 ‘기항지부(奇恒之腑)’, 즉 정상에서 벗어난 부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Table 3. Change of denotation and connotation of Six Bowels in ancient China

	전국시대 이전	전한 이후	규정과 인식의 변동
‘부(腑)’의 지칭대상	식도		고대 생리학 형성과 함께 육부에서 퇴출됨
	담낭	담낭	음식물의 이동 과정과 무관. 고대 생리학 형성기에 ‘기항지부’로 인식됨
	소장	소장	
	위	위	
	대장	대장	
	방광	방광	
		삼초	액체 성분의 이동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고대 생리학 형성기에 새로 도입됨
‘부(腑)’의 의미	관강성 장기	음식물 [水穀] 전변의 통로	소박한 해부학적 인식에서 기능적, 생리학적 인식으로의 전환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대 생리학 형성기에 형태에 근거한 장기관이 기능 중심의 장기관으로 이행함에 따라 육부(六腑)뿐만 아니라 오장(五臟)의 지칭 대상을 바꾸어 보고자 하는 시도도 이루어졌던 것 같다. 위(胃)는 생리적 역할을 기준으로 볼 때 고대 의학체계에서 그 중요성이 남다른 장기라 할 수 있다. 즉 고대인들의 인식에 있어 위는 음식물의 유효 성분을 흡수하는 유일한 관문²⁸⁾이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깊숙이 존재하는 장기이자 더 중요한 장기

28) 고인들에게 소장과 대장은 단순히 위에서 전달된 음식물 찌꺼기를 받아 담고[受盛] 향문으로 전달하는[傳導] 기관으로 인식되었다.

로 인식되었던 장(臟)의 하나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충분히 가능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이렇게 위를 오장의 하나로 편입시킬 경우 ‘장(臟)’이란 말을 『황제내경·소문·오장별론』에서 말한, ‘체내 유동 성분을 함장하는 장기’로 정의할 수 없게 된다. 현재로서는 간심위폐신 오장 학설을 견지했던 사람들이 과연 오장에 관해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오색맥진(五色脈診)』의 저자나 『사기·창공열전』의 주인공 순우의(창공)가 소위 ‘편작학파’의 일원이었으며²⁹⁾ 황제를 가택한 현행 『황제내경』의 저자들과는 견해를 달리하는 별도의 오장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고대 생리학 형성에 따라 새로운 장부 체계의 구축이 시도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이 밖에도 더 있다. 표 3에 적시한 바와 같이 담낭은 형태적 기준에서는 부(腑)에 소속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장부의 구분이 그 기능에 따라 이루어지는 단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부의 하나로 간주하기는 어렵게 된다. 따라서 『황제내경』은 담낭을 소위 ‘기항지부(奇恒之腑)’로 규정하였는데,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장부관의 해체와 재구성을 시도한 예도 보인다. 담낭을 아예 오장의 하나로 편입시킨 장부 학설이 그것이다.

이는 전국시대 제자백가서 『문자(文字)』와 전한시대의 문헌 『회남자(淮南子)』, 동진(東晉) 시기의 문헌 『황정경(黃庭經)』 등에 보인다.

『문자·구수(文字·九守)』에는,

노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천지의 변화를 이어받아 태어난다. 임신 1월에는 기름덩이와 같고, …… 10월이 되면 태어난다. 몸뚱이가 다 이루어지면 오장이 형체를 갖추다. 간은 눈을 관장하고 신장은 귀를 관장하며 비장은 혀를 관장하고 폐는 코를 관장하며 담은 입을 관장한다.³⁰⁾

29) Liu Cheongzhong. Medical classics excavated in Laoguan Shan must be the books of the Bianque School (老官山醫書確屬“扁鵲學派”). China News of TCM. January 20, 2014.

30) 老子曰：人受天地變化而生，一月而膏，……口十月而生。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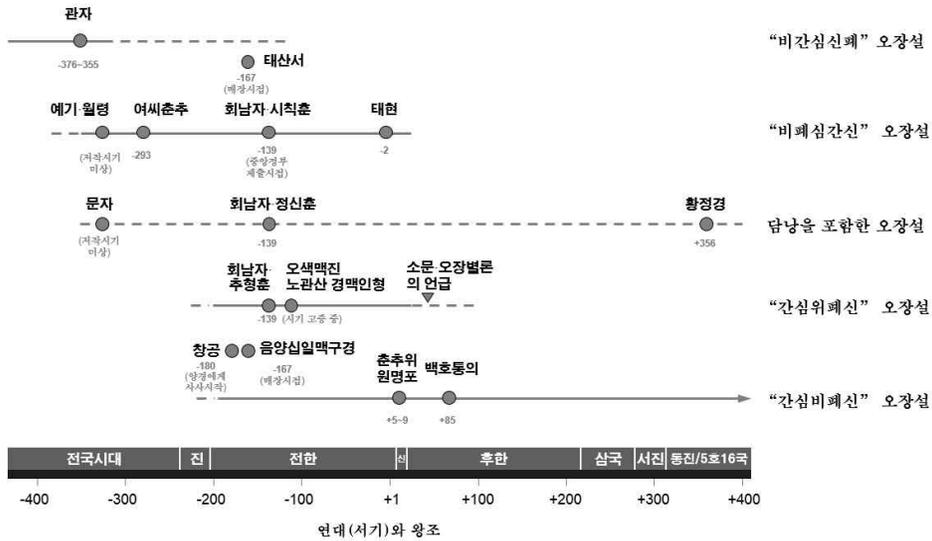


Figure 4. Various types of Five Viscera systems before current Five Viscera frame was settled in China.

라고 하여 간, 담, 비, 폐, 신을 오장의 지칭 대상으로 기술하였으며, 『회남자·정신훈(淮南子·精神訓)』에서는,

담낭은 구름이 되고 폐는 기가 되며 간은 바람이 되고 신장은 비가 되며 비장은 우레가 된다. 이런 식으로 천지와 상응하되 심장은 그들의 주인이 된다.³¹⁾

라고 하여 담을 간, 비, 폐, 신 네 장(臟)과 같은 수준에서 언급하였다.

장과 부의 지칭 대상은 후한대에 이르면 거의 지금의 형태로 고정된 것으로 보이나 담을 포함한 오장 학설은 도가 계열의 일부 문헌에 약간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일례로 『황정경(黃庭經)』(黃庭內景經 부분)은,

폐의 궁성은 화개와 같고 …… 심의 궁

骸已成，五臟乃形。肝主目，腎主耳，脾主舌，肺主鼻，膽主口。

31) 膽爲雲，肺爲氣，肝爲風，腎爲雨，脾爲雷，以與天地相參也，而心爲之主。

성은 연이 꽃봉오리를 머금고 있으며 …… 간 속에는 비취빛이 담겨 있고 …… 신의 궁성은 검은 궁궐이 등글게 되어 있고 …… 비의 궁성은 무기(戊己)에 속하며 …… 담의 궁성은 육부의 정수가 된다.³²⁾

라고 하여 간, 심, 비, 폐, 신의 오장에 담(膽)을 추가한 6개 장기를 한 데 언급하고 있으며³³⁾ 이는 훗날 『황정내경오장육부도(黃庭內景五臟六腑圖)』, 『황정내경오장육부보사도(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에 6장 체계로 계승되었고 조선의 『의방유취(醫方類聚)』에도 여기서 비롯된, 담을 포함한 6장의 도해가 등장한다.³⁴⁾

32) 肺部之宮似華蓋，…… 心部之宮蓮含華，…… 肝部之中翠重裏，…… 腎部之宮玄闕圓，…… 脾部之宮屬戊己，…… 膽部之宮六腑精，……。

33) 『문자』와 달리 『황정경』에서 5장이 아닌 6장을 언급한 것은 간·심·비·폐·신으로 구성되는 현행 오장 체계가 『황정경』 저작기에 이미 의학계의 정설로 자리를 잡은 탓에 기존 5장에 담낭을 추가하는 형태로 장부 체계를 기술한 것 아닌가 한다. 『회남자·정신훈』의 서술은 이 둘의 중간적 형태라 생각할 수 있다.

34) Kim Daehyung, Ahn Sangwoo. The study about the author and formation-comparison of *OhJangYukBuDo* quoted by *Euibangyoochui*. the journal of Korean

이상 본 논고에서 고찰한 『황제내경』 성립 이전의 다양한 오장 학설을 종합하여 그림 2(Figure 2)에 도시한다. 그림에서 각 유형의 오장 학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문물은 실선 위에 표시하였고 해당 유형과 관련된, 간접적인 단서에 해당하는 문물은 실선 아래에 따로 표시하였다.

그림에서 잘 드러나듯이 후한대에 현행의 오장 학설이 정착되기까지 고대 중국에는 여러 유형의 오장 학설이 병존했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논고에서는 『황제내경(黃帝內經)』 성립 이전에 비장 대신 위장을 포함한 오장 계통이 존재하였음을 밝혔다.

이처럼 간, 심, 위, 폐, 신으로 구성된 오장 체계는 전한시대 의서 『회남자·추형훈(淮南子·墜形訓)』, 『오색맥진(五色脈診)』과 전한시대 유물인 성도 노관산(老官山) 출토 경혈·경맥 인형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음양십일맥구경(陰陽十一脈灸經)』, 『사기·편작창공열전(史記·扁鵲倉公列傳)』에는 이 학설에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나타난다.

현행 오장 학설과 상이한 형태인, 위를 포함한 오장 학설은, 형태 중심의 장기관이 기능 중심의 장기관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장부 체계 재구성의 다양한 시도 중 한 가지 유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감사의 말씀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해 연구되었음.

References

1. Edited by Yingqiu Ren. Index of sentences in Huangdineijing (黃帝內經章句索引).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86.

medical history. 2003. 16(1). pp.39-62.

2. Written by Zihan Yu, Qiming Lian, Jiguang Li, Chuanhua Wu, Zimian Cheng, Yuanhong Chen, Xiaolan Liu, Guoxiang Zhao. Translated by Kiwang Kim, Changsik Yin, Seungho Shin. The origin of Huangdineijing (황제내경의 기원). Seoul. Iljungsang. 2003.
3. Written by Kano Yoshimitsu. Translated by Kyobin Kim, Hyungu Lee, Seokjun Park, Heuikyung Whang, Namho Cho. Chinese Medicine and philosophy (중국의 학과 철학) (title of original text = Birth of Chinese Medicine[中國醫學の誕生]). Seoul. Yeogang publishing company. 1991.
4. Jang Mi-jung, Kim Kiwang. Did the current correspondence scheme between Five Viscera and Five Phases arise from social and humane hegemony conflict? - some clues from "Changgongyeoljeon(倉公列傳)" in "Sagi(史記)".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0. 23(3). pp.127-138.
5. Tian Shuren, Wang Jianzhong. Answers to queries on absence of "Heart related to Fire" theory in the Western Han dynasty. Chinese journal of medical history. 1995. 5(3). pp.179-182.
6. Tian Shuren, Ma Rundi. On Canon of Internal Medicine from Liu Xiang and his son's theory of the coordination of Five Zang-Organs and Five-Elements. Hena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8. 18(3). pp.138-139.
7. Zhang Qicheng. Descrip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ve Elements and Five Organs. Journal of Nanjing University of TCM (social science). 2000. 1(1). pp.16-18.
8. Hao Bao-hua, Dong Hai-li. On cultural

- significance of “Five Zang”. Journal of Nanjing University of TCM (social science). 2001. 2(2). pp.52-62.
9. Xing Yurui. A study on the correspondence between Five Elements and Five Viscera (五行配五臟研究). Journal of Shanxi Colleg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4. 5(4). pp.1-4.
 10. Chang Li-guo, Ai Hao, Yian Jianhua, Niu Jianzhao. Concept of Five Organs and theory of Five Element. Shanxi Journal of TCM. 2007. 23(2). pp.52-53.
 11. Wang Zimo, Ding Lie, Wang Xiaoping. Re-discu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doctrine of “Heart should be the center of Five Organs” - from the corresponding schema of Five Viscera and Five Elements in Liu's Commentaries of History (再論“五臟以心爲主導”理論的建立—從《呂氏春秋》五臟與五行的配屬談起). Chinese Journal of Management in Chinese Medicine. 2008. 16(1). pp.64-66.
 12. Pan Qiuping, Duan Xiaohua, Liang Jicun. Textual research on the origin of Viscera theory in Huangdineijing (《黃帝內經》藏象學說淵源考證). Journal of Beijing University of TCM. 2010. 33(2). pp.80-82.
 13. Chen Jiquan, Li Jingbo. A further study of Five Elements and Five Organs correspondence (五行與五臟配屬史的再研究). Guangming Journal of Chinese Medicine. 2010. 25(11). pp.1986-1988.
 14. Hun Kwan Kim, Won Sik Hong. A study of Hwang Jae Nae Kyung (黃帝內經)'s O Hang Kui Ryoo (五行歸類).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1996. 9. pp.654-699.
 15. Changryol Yun. The beginning and it's application of Yinyangwuxing theory (음양오행론의 발생과 그 응용).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6. 19(4). pp.212-218.
 16. Jang Woo-chang. A discussion on the controversy of relation between the Five Changes theory (五行論) and the Five Viscera from Geummun-Sangseo (今文尙書) and Gomun-Sangseo (古文尙書).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9. 22(1). pp.61-70.
 17. Huang Zao. A shallow discussion on the time Shuidi in Guanzi was written (淺論《管子·水地》篇成文的時限) in Guanzizyanzi (管子研究). Jinan. Shandong People's Publishing House. 1987. pp.42-51.
 18. Xu Dongliang, Cao Shenggao. Discussion on the origin of Cungqiuewei (《春秋緯》成書考). Journal of University of Jinan (Social Science Edition). 2009. 19(4). p.53.
 19. Daesik Ryu, Kyungsu Keum. A study on Wuzangbielun in Suwen (《素問·五臟別論》에 對한 研究).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1995. 8. pp.263-278.
 20. Liang Fanrong, Zeng Fang, Zhou Xinglan, Xie Tao, Lu Yinke, Wang Yi, Jiang Zhanghua. Preliminary study on lacquer figure with meridian-points marked of the western Han dynasty unearthed in Laoguanshan, Chengdu. Chines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2015. 35(1). pp.91-93.
 21. Kim Daehyung, Ahn Sangwoo. The study about the author and formation-comparison of OhJangYukBuDo quoted by Euibangyoochui.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03. 16(1).

pp.39-62.

22. Liu Cheongzhong. Medical classics excavated in Laoguanshan must be the books of the Bianque School (老官山醫書確屬“扁鵲學派”). China News of TCM. January 20, 2014.
23. KISTI (from original work of Min Suk Chung, Ajou University), Visible Korean. Available from: URL: <http://vkh3.kisti.re.kr/>